

스페인 세비아 대성당



스페인 남서부의 유서 깊은 도시 세비아는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로 꼽힌다. 기념비적 건축물이 즐비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깃들여 있으며 옛 시가지의 골목길 돌바닥은 달아서 반질거릴 정도로 오랜 세월을 지켜오고 있다. 그 이름에서부터 그렇듯이 플라멩고와 투우사를 연상시키는 스페인 정서가 가득 배인 이 도시는 골목마다 개성 넘치는 식당이나 상점만으로도 매력이 넘친다.

세비아 시내로 들어가면 웅장한 건물이 나타나는데 고딕 양식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세비아 대성당이다. 정식 명칭은 성모 마리아 주교좌 대성당. 원래 이슬람 사원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성당으로 1402년부터 약 1세기에 걸쳐 지어졌다고 한다. 건축 당시 “새로운 대성당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만듭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어진 거대한 규모의 고딕 양식 건축물의 절정이다.

숙소가 성당 가까이 있는 덕분에 성당을 자세히 볼수 있었다. 조명이 밝혀진 세비아 성당의 상징 히랄다 탑은 100m 높이로 세비아 시내의 야경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원래 이슬람사원의 첨탑을 증축해서 성당의 종탑으로 사용했는데 왕이 말을 타고 올라갈수 있도록 계단이 아닌 경사면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성당의 전시관에는 미사 전례와 역대 성직자들의 복식, 값진 보석으로 장식된 성구와 보물들을 전시하고 있어서 마치 박물관 같았다. 특히 이슬람 교도로부터 세비아를 되찾은 산 페르난도 왕을 비롯한 중세기의 왕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 콜럼버스의 묘도 이 성당 안에 있다.

콜럼버스는 자신을 지지해주던 이사벨 여왕이 사망하자 지위와 재산을 모두 몰수 당하고 어두운 말년 세월을 보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죽어서도 결코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고 유언을 남기고는 신대륙인 스페인령 쿠바에 묻혔다. 쿠바가 독립하면서 유골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스페인으로 옮겨졌고 죽어서도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던 그의 유언에 따라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의 관을 만들어 안치를 했다 한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 그의 관은 통일 전 스페인의 4개국 왕들이 짊어지고 있다.

다음날, 스페인광장 회랑에서 만난 플라멩고 춤을 추는 집시 댄스와 기타 반주자의 노래가 한이 서린듯 애절하다. 춤과 노래가 워낙 열정적이어서 돌아서도 오래 마음에 남는다. 이슬람 문화와 절묘하게 조화된 안달루시아 지방의 주도 세비아, 춤지 않은 날씨 덕분에 늘 봄비는 관광객과 다양하고 부담없이 즐기는 맛보기 음식 파에야, 그리고 푸른 정원과 올리브가 유명하다.



Canon-5DSR 1/250, F11, 35mm ISO200

부활
제 2주일
2023년
04월 16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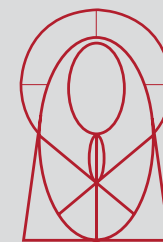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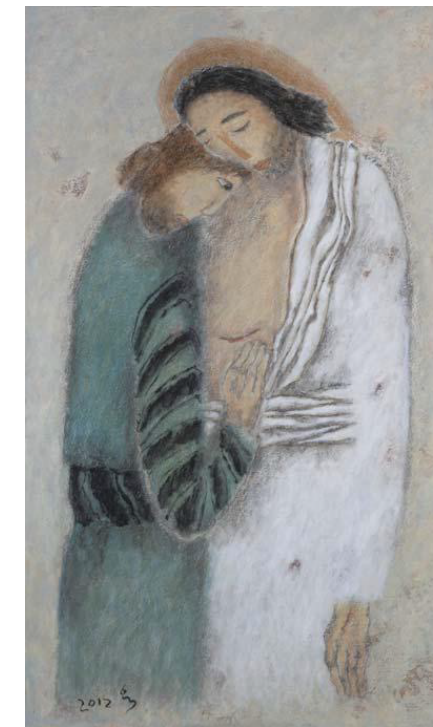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사도행전2,42-47
- # 화답송 시편 118(117),2-4.13-15 7 11. 22-24(©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제 2독서 베드로 1서1,3-9
- #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곁에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 복음 환호송 요한 20,29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사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 복음 요한 복음20,19-31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 성기번호 입당 136 봉헌 217 성체 182 파견 12

성당 소식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문명선 - 가족, 변태용(요셉) 가족, 이윤석(리처드), 채미영(테레사) 이스트브런스워 구역
- 백봉화 - 가족, 반석희, 사우스브런스워 구역, 변태용(요셉) 가족, 황태진(필립보) 가족, 우영인(가브리엘), 이대우(베드로) 가족, 채희백(바로로)

- 권숙자(요안나) - 최종인(세레나)
- 이석중(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로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규호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이동현(요셉) - 가족
- 최예생 - 김 스텔라
- 윤명섭(아오스딩), 김용한 -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테레사) - 임 안나
- 오경선(원선시오) - 우영인(가브리엘)
- 오용덕(헨리코) - 우영인(가브리엘)
- 채희백(바로로) 가족 - 김순옥(울리아)
- 이금주(베드로) 가족 - 김순옥(울리아)
- 김도용(스테파노) - 김순옥(울리아)
- 이문식(더글라스), 이은아(테레사) 가족 - 이서형(요안나), 이소희(사라), 이스트브런스워 구역

- 오은주(로사) - 고성희(아니시아), 유미선(클라라)
- 나채국(제노) - 박락준(베드로)
- 기도해주신 모든 교우분들 - 오은주(로사)
- 안현정(소화테레사) - 박병태(가브리엘)
- 김수완(세실리아) - 박병태(가브리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4/9 주일 헌금 (196명)..... \$2,002
- 4/7 Holy Land \$227
- 부활 감사헌금 \$4,837

손종철\$500	오애희\$300	익명\$300
채희백\$200	황태진\$200	이종실\$200
김영필\$200	강성기\$100	손흥구\$100
오용덕\$100	박재영\$100	서영원\$100
윤안젤라\$100	최혜자\$100	최영찬\$100
곽신규\$100	박화성\$100	최골롬바\$100
유병기\$100	백헬렌\$100	양마틸다\$100
방숙자\$100	황분숙\$100	최영옥\$100
Unsik Torres\$50	조글라라\$50	이보현\$20
이광호\$20	이정옥\$20	
- 교무금 \$1,040

손흥구(4-6)	최울리오(1-2)	박락준(4)
이광재(4)	이대우(3-4)	허종(3)

2차 헌금

- 4월 16일: 유틸리티
- 4월 30일: Catholic Relief Services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예정이오니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4월 1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예비자 교리서(\$8/권) 구매 신청하신 분들은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성당 화단 가꾸기 봉사

- 봄철 성당 주변 화단 가꾸기 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매년 꽃밭 가꾸기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지구의 날 행사

- 일시 및 장소: 4월 22일(토) 오후 2시 ~ 4시 성당

이스트브런스워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4월 23일(주일) 친교실 회의실

요셉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7일(주일) 친교실 회의실

유스그룹 주관 제 1회 OLM 탁구 토너먼트

- 일시 및 장소: 4월 30일(주일) 오후 1시 친교실
- 참가비: \$5/인
- 다양한 상품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미공동체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든 수익금은 유스그룹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본당 유지 관리 현황 (County FD 점검 후 후속 조치 중)

- 전기실 및 보일러실 출입문에 방 이름 명시 완료
- 성당 뒷문 비상구 근처에 있던 물건 이동하여 비상구 통로가 방해물로 막혀있지 않도록 조치 완료
- 친교실 선반에 짐 적재시 천장으로부터 18인치의 공간을 두고 적재하여야 하며 4/16일까지 조치 완료 예정
- 청소도구 보관실 조명 설치 예정
- 성당 건물 내 소화기 점검 완료
- 성당 비상구 표시등 점검 및 수리 중
-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확립 중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3/31까지 약정 금액은 \$30,578.14 (목표금액의 82.64%)입니다.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 |
|------------|-----------|
| 정영철(프란치스코) | 하건철(안토니오) |
| 오용덕(헨리코) | 오경선(원선시오) |
| 염은미(클라라) | 하준석(마테오) |
| 곽 율리안나 | 방진숙(테레사) |

말씀 반전례

제1독서: 사도행전2,42-47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내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베드로 1서 1,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복음 20,19-31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요한 20,25)

묵상도움글

김현수 프란치스코 신부

“평화가 너희와 함께”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자리에 없었던 토마스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서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부활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몰았던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고 만지라고 하십니다. ‘상처 없는 신앙’을 바라는 우리에게, 기존 틀에 안주하려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상처’를 보고 만지라고 하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감싸느라 입게 된 예수님의 ‘깊은 상처’ 안에 ‘답’이 있다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부활’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상처가 없는 신앙’은 환상입니다.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상처를 지니지 않은 ‘마법 같은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못 자국과 상처를 지닌 부활”에 있기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분’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느님입니다. 나의 고통과 전혀 상관없는 하느님, 세상의 아픔을 모른 채,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며 제물을 바치면 툭툭 소원 들어주는 ‘우상의 신’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고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는 것’(마태 25, 40)이라며,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당신과 동일시했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에서, 사람들의 상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또 그 안에서 진정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3번이나 반복하신 주님의 인사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교구)



말씀 나눔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1. 나의 삶 안에서 상처와 죽음의 표지였던 것이 희망과 기쁨의 표지로 바뀐 경험이 있나요?
2. 하느님에 대한 의심의 순간들이 언제 들었나요? 그때 나는 어떻게 의심을 극복하고자 했나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요한 20,25)

